

행복을 찾아주는 부처님 말씀 <30>



어떤 시아버지 이야기

급고독자에게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수마제. 매우 아름답고 품행도 단정하여 사 람들의 칭송이 자자하였습니다.

어느 날 급고독자에게 친구인 만재장자가 찾아왔습니다. 수마제가 나와서 인사를 드리자 며느리감을 찾고 있던 만재장자의 눈이 번쩍 뜨 였습니다.

"이보게, 자네 딸을 내 며느리로 주게나."

하지만 급고독자는 승낙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가족들은 독실한 불자집안인데, 친구의 집안은 자이나교의 나체행자를 믿고 있 기 때문입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승낙을 미루던 급고독자는 친구가 하도 조르는 바람 에 부처님께 의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부처님은 아주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 답하셨습니다. 부처님의 은혜한 허락으로 장자는 용기를 내어 딸을 시집보냈습니다.

그런데 만재장자의 고향인 만부성에서는 성 밖의 사람들과 혼인 맺으려면 자기들이 믿는 나 체행자 6천 명을 초대하여 정성껏 음식을 공양 하면서 허락을 얻어야 했습니다. 만재장자도 6

그런데 마침 이때 장자의 오랜 친구가 찾아와 그의 걱정을 털어주었습니다.

"오히려 잘 되었네. 어서 부처님을 집으로 모 시고 밥을 들어보게나."

친구의 권유로 결국 만재장자는 며느리에게 말하였습니다.

"아가, 네가 믿는다는 그 부처님을 나도 한번 뵈자꾸나. 그 분과 제자들을 집으로 초대하렴." 자기 때문에 시집에 그림자가 드리운 것이 가슴 아팠지만 옳은 신앙만큼은 양보할 수 없어 속앓이를 하던 며느리는 시아버지의 제안이 고맙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부처님과 제자들을 시집으로 초청하였습니다.

부처님이 제자들을 거느리고 만부성으로 들 어오시면 날, 한번도 부처님을 본 적이 없는 성 의 사람들은 모두 거리로 쫓아져 나왔습니다. 만재장자의 집안에 평지풍파를 불러일으킨 며느리의 "그 스승"을 구경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장자의 여법한 공양을 받고 난 부처님은 만재 장자에게 오계를 지킬 것과 보시할 것, 그리고 선업을 닦아서 현상에 태어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나아가 탐욕과 번뇌는 더러우니 속히 벗어나

뜻 거역한 며느리 타박않고 먼저 마음 연 만재장자 부처님 집으로 모셔 설법듣고 제자되어 해안 열려

천 명이나 되는 나체행자들을 집으로 초대하였 습니다. 그리고 귀한 음식을 대접한 뒤에 며느 리를 불러내었습니다.

수마제는 시아버지의 명을 받고 단정하게 차 정하고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나체행자들을 보는 순간 기겁을 하고 자기 방으로 돌아갔습니 다.

"저는 밭거벗은 사람들에게 절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믿고 있는 부처님과 제자들은 모두가 법다운 모습으로 공양을 받는데 저들은 부끄러운 꼴도 모르는가 봅니다."

한바탕 소동이 일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아무 리 타이르고 권해도 수마제는 나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처님 이야기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나체행자들은 크게 화를 내고 돌아갔습니다.

갓 시집은 며느리의 행실처곤 도저히 그냥 넘 길 수 없는 무례였습니다. 시아버지는 그날 이 후 한숨 속에서 나날을 보내었습니다. 애초에 예견하지 못한 것은 아니었으나 며느리가 너무 나 원강하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잠시 제정신을 잃었던 게야. 며느리를 잘못 들여 집안이 망하게 생겼구나."

라고 이르셨습니다.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장자의 생각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밥을 받아들일 마음이 짐이 갖추어졌음을 보시고 부처님은 이어서 사 성제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 진리를 보는 깨끗한 눈을 얻게 된 만재장자는 동쪽 동산에 절을 지어 승단에 바쳤습니다. 이 일로 인해 그 성의 사람들도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자기의 뜻을 거역한 며느리를 타박하지 않고 오히려 마음을 먼저 연 시아버지 만재장자. 그는 며느리로 인하여 진리의 세계에 발을 디울 수 있었습니다.

이쯤 되면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어떤 칭찬 의 말을 하였을지 궁금해집니다.

그는 말하였습니다.

"아가,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하였구나. 너는 내 어머니이다."

훗날 사람들은 그 절을 '만재장자 어머니의 강당(녹자모강당)'이라 불렀습니다.(보요경, 증 일아합경 서툼)

■ 이미정(중국역경원 역경위원)



무엇때문에 불교를 믿고 수행을 하는지를 알고 공부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묘허 스님.

묘허 스님은 1943년생. 1957년 상주 남장사에서 한산당 회암 선사를 은사로 득도했다. 1963년 불교전문강원 대교과를 졸업했다. 1965년 월하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한 이후, 성암감백 화상 밑에서 대교이력 및 <전등록>을 이수하고 이후 제방에서 정진하였다. 특히 통도사 보광선원 수선안거이래 11하안거를 성단했다. 1975년 은해사 말사 법주사 주지를 거쳐, 1979년 신라진 신홍사 주지를 역임했다. 현재 대전 신홍사 김해 원명사 단양 방곡사 회주를 맡고 있다.

악의 열매가

우리가 불교를 믿고 법문을 듣고 수행을 하면서도 내가 무엇 때문에 혹은 무엇을 위해서, 또 무엇을 깨치기 위해서 불교를 믿는가를 잘 모르고 공부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묘허 스님

(단양 방곡사 회주)

우리가 불교의 진리를 깊이 알고 들어가보면 우리의 본래 모습 즉 '자성'인 참나가 불생불멸(不生不滅)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죽지도 않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가지도 않고, 더한것도 없기 때문에 덜한것도 없고, 본래 더러운 것도 없기 때문에 깨끗한 것도 없는 것이 우리의 본래 모습이요, 자성(自性)이요, 참나입니다. 바로 이 참나를 발견하는 것이 불교공부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참나는 불생불멸하다고 했는데 어떻게 우리 눈앞에서 나고 죽고 오고감이 이루어 질 수 있을까요?

우리 중생 스스로가 참나를 망각하고 오직 부모에게 받은 이 육체에만 집착해 일생동안 이 육체의 앞잡이 노릇과 종노릇하면서 이 늙만 행복하게 해주려고 업(業)만 짓고 사는 것이 중생입니다. 그러다보니 우리 몸중아리의 안락만을 위해 욕도를 전전하면서 윤회전생하는것. 이것이 우리네 중생들의 삶입니다. 그러면 생사의 근본, 윤회의 원인은 무엇인가? 바로 업이지요. 이 업이 태어나고 죽음의 근원이 되고 윤회전생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업이라는 말을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업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면서 일이 뜻대로 잘 안 풀릴 때 뭐라 그림니까. 전생에 업이 얼마나 많은지, 업장이 얼마나 두터운지, 아이구 이래도 업이 다 소멸되지 않았는지 이런식으로 업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너 대체 업이 뭐데?"하고 물어보면 분명하고 똑똑 어지게 대답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어쩌서 그러냐 하면 이 업이라는 말의 어원이 본래 우리말이 아닙니다. 업은 산스크리트어로 '카르마'인데 이것이 허탈파라 산맥을 넘어 중국명으로 불교가 전해지면서 한문으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바로 업(業)자를 사용하게 됐어요. 업을 가장 알기쉽게 얘기하면 무엇이나, 우리가 하고 있는 일, 내가 하는 행위, 그 자체가 업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이 하는 일을 물을 때 뭐라고 합니까. "네 직업이 무엇이나?" 그러지요 이것도 결국은 현재 하는 일 즉 업을 묻는 것입니다. 내 직업은 상업이다, 농업이다, 공무원이다 그렇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업이지요. 그러나 그 이전에 했던 일거수일투족 행위 자체도 업 아닌 것이 없지요.

업은 크게 '사업(事業)'과 '사기업(謀己業)'으로 나눕니다. 우리 불교에서는 다른 종교와 달리 선악사비를 누가 만들어 설정해 놓은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누가 만들어 놓은 것인데 우리 목전에 선악과 사비가 왜 나타나느냐고 물으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선악의 원인은 우리가 일으키는 한 생각에 있습니다. 한 생각 일어나는 마음, 이것이 선악의 원인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선과 악으로 갈라질까요. 악한 마음이 일어나는 순간이 바로 죄가 되는 순간이요, 그다음에 착한 생각, 여진 생각이 일어나는 순간이 바로 복이 되는 순간입니다.

아예 이 생각 자체를 끊어 버리면 죄도 없고 복도 없어요. 여기서 일어나는 생각, 좋고 나쁜 생각 등 그 생각 자체를 '사업(事業)'이라고 합니다. 이 사업은 깨 버리면 업이 되질 않는데, 이것을 마음속으로 결정지어 버리면 '작위업(作爲業)' 즉 '사업'이라고 합니다. 또 결정지어진 생각을 우리 몸뚱이가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행위업(行爲業)' 즉 '사기업'이라고 하지요. 그것을 통칭해 우리가 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약해 말하면 이 사바세계에서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다 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일생동안 우리가 지은 업은 끝이 없습니다. 그 셀 수 없는 업을 또 나누어 보면 선업과 악업, 무기업 등 세 가지로 다시

2005년 팔공산 동화사 여름 수련회

팔공산 동화사에서는 2005년 여름수련대회를 개최하여 부처님 말씀의 지고함을 배우고 익히, 신심을 정정히 하고 참된 자아를 찾고자 합니다.

이 수련기간을 통해 타성에 빠진 삶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삶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름수련회 수련생을 다음의 일정과 절차로 모집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수련회 일정 "참된 자아를 찾아서"

차수	기간	대상자	인원
1차	7월 16일 ~ 7월 17일 (1박2일)	고등학생	80명
2차	7월 18일 ~ 7월 19일 (1박2일)	중학생	80명
3차	7월 28일 ~ 7월 31일 (3박4일)	일반/대학생	60명
4차	8월 4일 ~ 8월 7일 (3박4일)	일반/대학생	60명

■ 접수기간 : 2005년 6월 21일부터 선착순 마감
 ■ 신청서 : 신청서 양식은 동화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인터넷 및 팩스 접수를 원칙으로 합니다. 전화로도 접수 할 수 있습니다. (팩스로 신청시 전송 후 전화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련회 참가비: 중/고등학교 2만원, 일반/대학생 6만원
 ■ 접수 방법 및 등록 : 선착순 접수에 의해 마감하며, 참가비 입금이 확인되면 수련생으로 정식등록이 됩니다. 개인 사정으로 불참하더라도 입금한 참가비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계좌번호: 대구은행 179-05-000614-1 동화사
 *입금확실때는 수련회 접수이름과 동일명으로 입금하시고, 입금확인서 사본을 동화사로 송부바랍니다.
 ■ 준비물: 필기구, 세면도구, 체육복, 운동화, 이불(침낭) 수건2장(발우공양), 수저, 간편한복장
 ■ 접수안내: **전화 (053)982-0101, 팩스 (053)985-4405**
 *자세한 내용은 **동화사 홈페이지(www.donghwasa.net)**를 참조바랍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9교구본사 동화사

Wellbeing Life

장혜명 스님께서 15년간 환경보존연구와 미생물(효소) 연구 끝에 직접 생산하신

건강기능식품인 효소발효제품 아로하, 향적당

신진대사 활성
장내플로라 개선
체질 개선

▶

활력있는 삶
웰빙 라이프

현대인의 건강한 삶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 아로하 : 1개월분 (270캡슐) 12만원
 • 향적당 : 1개월분 (270캡슐) 24만원

장(腸)이 건강해야 전신이 건강할 수 있다!

전국 소자본 대리점 모집 (부처님 제자이시면 더욱 좋습니다)

■ 제조 및 판매: **☎선농BIO식품(주)**

■ 본 사 : 대전광역시 서구 갈매 2동 1219

■ 공 장 : 충남 홍성군 은하면 덕실리 342-8

■ 홈페이지 : <http://www.sunnong.co.kr>

■ 소비자상담실 : 042) 531-0026, 531-0027 / FAX 042)523-3316

*효소는 신체를 구성하는 세포의 안과 밖에서 여러 생화학작용의 촉매역할을 하여 정상적인 세포는 더욱 더 활발하게 해주고, 비정상적인 세포는 도움을 주어 세포의 생체활동에 기능적으로 관여하는 아주 중요한 물질입니다. 5000여종의 효소는 소모되어지기 때문에 보충해주어야 합니다.

익으면 반드시 재난 당한다

나눌 수 있습니다. 자신과 상대가 함께 도움이 되고 득이 되는 행위가 선업이고, 자신과 상대에게 피해를 미치는 것이 악업이며, 자신과 남에게 해도 득도 모두 안되는 것이 바로 무기업입니다. 무기업은 힘이 없는 업, 무기력한 업을 말합니다. 왜 나같이 힘없는 늙은이를 무기력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쉬워요.

이런 업들을 우리는 몇가지 신체기관으로 짓게 됩니다. 신구의(身口意) 즉 몸과 입과 뜻을 의미하는데, 이것을 바로 신구의 3업이라고 합니다. 첫째, 몸으로는 살(殺), 도(盜), 음(淫)을 행하게 돼 있습니다. 바로 몸으로는 세가지 업을 짓게 돼 있죠. 둘째, 입으로는 네가지 업을 짓는데 망어, 기어, 양설, 악구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뜻으로는 탐, 진, 치 세가지 업을 짓지요. 신구의 기관을 통해 나쁜 행위를 저지르면 악업이 되고 잡으면 선업이 되지요.

업에는 또 나와 남이 함께 어떤 행위에 대해 책임져야 하는 '공업(共業)'이 있고, 그 과보를 혼자 돌려 받는 '불공업(不共業)'이 있습니다.

이와같이 업의 종류는 다양하고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신구의 3업을 통해서 한번 짓고 저질러 놓은 업은 백겁 천겁 만겁이 지나가더라도 잊어지지 않고 시집안연이 도래하면 자기 스스로가 다 돌려받게 됩니다. 그런데 돌려받을 때에는 또 어떻게 받느냐 하면 선업은 선보(善報), 좋은 일을 하면 좋은 결과를 돌려 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겨요. 내가 좋은 일을 해냈는데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악업은 악보(惡報)라 했지요. 나쁜일을 지어 놓았으면 나

생사의 근본은 윤회, 윤회 원인은 업 내가 일으키는 한 생각에 선악 갈라져 달콤한 유혹도 물리치고 선업 쌓아야

쁜 결과를 가져오는 힘과 능력은 있지만 좋은 결과를 가져 올 수는 없지요. 이렇게 이야기 하면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해만 끼치고 덕만 보려는 못된 사람인데 지금은 굉장히 부자인 반면, 어떤 사람은 자신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에게 재물을 나눠줄 만큼 착한 사람인데 가난하게 삽니다. 이것은 어떤 이유 때문이지요? 스님이 설명하시는 인과법대로라면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라고 말입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을 우리 주위에서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질문에 저는 <법구경>의 구절로 답을 하지요.

'악의 열매가 맺기 전에는 악한 자도 때론 복을 만난다. 그러나 악의 열매가 익었을 때 악한 자는 반드시 재난을 당한다. 선의 열매가 맺히기 전에는 선한 이도 이따금 화를 만난다. 그러나 선의 열매가 익었을 때 선한 사람은 복을 받는다'고 말입니다.

악한 자가 지금 잘사는 것은, 잠시동안이나마 그 사람의 지난 업의 과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선업을 짓지 않는다면 업의 열매가 익었을 때 그 사람의 복덕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지요. 반대로 선한 자가 현재 못사는 것도 지난 업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좋은 업을 짓다보면 언젠가는 좋은 결과가 분명히 옵니다.

업에 대한 과보를 받는 것도 세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순현보(順現報)라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의 업을 현재에서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교도소입니다. 교도소 담장안에 수인의 몸이 부서 징역을 살고 있는 죄수들, 전생에 진게 아니고 바로 금생에 지은 업 때문에 과보를 받는 것 아닙니까? 나쁜 생각을 생각에서 꺼트렸으면 괜찮은데 그만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기 때문에 과보를 받는 것이지요.

둘째, 금생에 지어서 내생에 돌려 받는 업이 있어요. 이것을 순생보(順生報), 순차보(順次報)라고 합니다. 셋째, 금생에 지은 업이 업에 밀려가지고 내생에



좋은일을 하면 좋은 결과를 돌려 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긴다는 묘허 스님.

도 그 결과 과보가 도래되지 아니하고 저 후생까지 뻗쳐 나가는 업이 있어요. 그것을 순후보(順後報)라고 합니다. 언젠가는 바로 그 과보를 돌려받는데, 금생에는 어질고 착하고 선한데도 불구하고 뭔가 마음대로 잘 안 풀려나가는 사람은 지금 짓고 있는 업이 아직 설악은 업이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농사를 지어왔어도 맛이 있거나 없거나 먼저 지어놓은 곡식 먼저 먹어지지, 미리 지어놓은 곡식 맛없다고 아직 익지도 않은 설은 것을 먹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이치와 같습니다. 다시말해 지금 짓고 있는 업은 아직 익지 않은 설은 업이지만 전생에 지어놓은 업덕으로, 지금은 비록 악한자라도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선업을 짓지 않는다면 이 업은 생유와 분유, 그리고 사유와 중유에서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자궁에 자리잡고 있을때 인 입태, 세상에 나오기전까지 배 속에 있는 동안의 채택, 태어남의 출태, 이 세가지를 한마디로 생유라고 하고, 태어나서 일생을 사는 동안을 분유라고 합니다. 한 평생 살다가 죽으면 사유라고 하는데, 이는 다시 태어나기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입니다.

그런데 죽어서 다시 이생으로 돌아올 때 까지를 중유라고 하지요. 따라서 우리는 생유에서 분유로, 사유에서 중유를 통해 다시 사유를 거쳐 생유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생에서 사로 가면 돌아가신 것이지만, 사에서 다시 생으로 오니 돌아오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렇게 윤회와 업연의 원리를 정확히 알면 금생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답이 정확히 나오지요. 불자 여러분들, 조금 힘들더라도, 때론 달콤한 유혹이 들더라도 지금 우리가 살아 가는 이 순간 선업을 쌓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내생생히 평안하고 더 즐겁습니다. 정리=김주일 기자·사진=박재환 기자



로담 스님의 스님이야기

현문 스님 (上)

나는 송광사로 출가하면서 현문 스님을 처음 보았다. 당시는 지금과 같이 먼 내륙이 일반화되지 않았고, 나는 합성 내륙 안에 란닝셔츠를 입지 않고 있었다. 현문 스님은 합성내복 안에 란닝셔츠를 입지 않으면 어린 피부가 상한다며 손수 입혀주셨다. 누군가 우리의 삶을 늘 지켜봐 주시는 분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나의 은사스님 현문 스님을 생각하면 한겨울에도 푸르름을 지키는 대나무가 연상된다. 스님은 당시 수행에 대해서는 한 치의 여유도 용납하지 않는 엄격함을 지녔으면서도 상좌나 이우에게는 자애롭게 구석구석 마음을 써 주신다. 현문 스님은 상좌들 교육에 관심이 많다. '상좌 교육을 책임지는 은사가 되어야 한다'는

그 일에 밀리게 되어 공양이 끝나면 스스로의 발우만 올려놓으면 됐다. 대신 선반이 부족했다. 여의치 않은 사람은 벽장 책장에 넣어야 했다. 은연중에 정갈전이 벌어졌다. 그러다 보니 공양을 마치는 죽비도 치기 전에 발우를 올리다 소임자 선배에게 혼이 나기도 했다. 포기할 때도 있지만 오기가 생길 때도 있다. 그날은 착심한 날이었다.

올라라고 하다 옆 도반이 내 팔을 쳐 발우가 떨어졌다. 발우를 들어올리기 전에 여간에서 서 있는 은사스님 눈치부터 봤다. 몹시도 표정이 굳어 나가셨다. 당시는 목 발우와 사기발우가 유행했지만 나는 플라스틱 발우였다. 바닥에 떨어진 플라스틱 발우는 깨졌고 나는 눈앞이 캄캄했다.

잠시 후 현문 스님이 후원 객실로 나를 불렀다. 발우가 어찌 되었느냐고 물기에 조각이 나 쓸 수 없게 되었다고 말씀드렸다. 스님의 걱정은 컸다. 수행자가 발우를 지니는 것은 부처님의 큰 복을 얻은 것인데, 그 복을 잃은 것도 아니고 깨트렸으니 수행자 생활을 평탄하게 할 수 있느냐며 어디에다 복을 담아 연명할 것이냐고 걱정하셨다. 내

상좌들 교육에 지극정성 자신에겐 빈틈없이 엄격

가 깨진 발우로 공양하기를 여러날이 지나자 은사스님은 새 발우를 사 주셨다. 상좌들을 공부시키면서 애태우는 일도 많으셨다. 그래서 상좌들에게 가끔씩은 "내 죽거든 가슴을 열어 보아라. 아마도 새까맣게 타 버렸을 것이다"라고 웃으면서 말씀하시곤 한다.

현문 스님은 늘 강조하시는 말씀이 있다. 하루 빨리 스님들을 위한 정림원 교육도량, 신도들을 위해서는 전문수련 도량이 종단차원에서 설립 운영돼야 한다고.

은사스님의 상좌들을 헤아려 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에서 공부하고 해군법사로 활동 중인 소령 '정해', 일본 용곡대 대학원 석사와 중국 유학을 한 '정묘', 동경대 대학원 박사 과정을 마친 '정원', 대만 중화불학연구소 석사 '정도', 중국대 불교대학원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정인', 원광대 불교학석사 '정행', 동국대 석 박사 과정의 '정각', 영국 런던대학 동양학연구소 석사 '정여', 박사과정 '정택', 동대 대학원 '정화' 스님 등이 있다. 공부하는 상좌들이 특히 많은 것은 은사스님이 지극 정성을 기울인 결과라고 본다.

은사스님은 현재 라오스 젊은 스님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즐거움으로 지내신다.

로담 스님은 해인사 강원과 중앙승가대를 졸업하고 동국대 교육대학원을 수료했다. 서울 봉은사 총무와 중앙승가대학 교학국장·총무처장을 역임했다. 현재 가평 아가타 보원사 주지와 현대불교문인협회 기획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림·문병성

말을 자주 하였고, 또한 은사와 상좌의 관계는 '은사로서만이 아니라 같이 법을 구하는 구법자적인 도반으로, 인간의 정리(情理)적인 입장에서 도 친구로 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신념이 있다.

그래서 상좌가 강원에 가면 같은 가람 선원에 안겨하면서 상좌 공부를 지켜보셨다. 상좌들이 서울 공부할 하게 되자 지금의 상도동 장승백이 약수암 절을 가꾸어 공부를 지켜보고 계신다.

내가 1974년 해인사 강원 지문반 때 일이다. 은사스님도 선원에서 정진을 하셨다. 그 때 해인사는 선원, 강원을 망라해 대중이 많았다. 대중이 많았으니 공양을 할 때면 중좌에 결중좌를 치고 공양을 할 수 밖에 없었다. 공양하는 시간이면 큰 스님과 선배스님들에게 청수를 따르고 공양을 푸고 국을 떠드린 뒤, 공양 중간에도 송농을 따르고 찬상을 날라야 했다. 공양이 끝날 적이면 여간 큰스님 앞에 나아가 합장 반배를 하고 무릎을 꿇고 큰스님이 주시는 발우를 받아 선반에 올려놓고 난 뒤에 내 발우를 제자리에 올려놓을 수 있었다. 초심자가 큰스님의 발우를 받아 올릴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복을 짓는 일이라 신이 났다.

삼계월이 지나고 후원 소임자들이 방부를 들이자 대중 방은 더욱 좁았다. 새 대중이 들어온 만큼

한국 불자들을 위한 달라이라마의 특별법문

Dalai Lama's Dharma Teaching

달라이라마께서 <임보리행론>을 통해 인도의 위대한 불교 스승인 '산티데바'의 생생한 법음을 들려 줄 것이며 불교 수행의 핵심을 일깨워 줄 것 입니다.

임보리행론(入菩提行論)은 보리심을 일깨워 보살행을 실천하고 이를 통해 깨달음에 이르도록 하는 수행 지침서로서 우리의 화엄경이나 범화경에 비견 할 만한 경전입니다. 달라이라마께서는 이 법문을 통해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북돋아 줄 것이며 올바른 수행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행사일정

A팀 기간 : 12월 3일 ~ 12월 18일 16일간 (불교성지순례와 달라이라마 설법)
인천-델리-아그라-바라나시-보드가야-파트나-바이살라-쿠시나가르-기원정사-다람살라(설법)-찬디가르-델리-인천

B팀 기간 : 12월 9일 ~ 12월 18일 10일간 (달라이라마 설법)
인천-델리-다람살라-찬디가르-델리-인천

C팀 기간 : 12월 10일 ~ 12월 19일 10일간 (달라이라마 설법)
인천-델리-다람살라-찬디가르-델리-인천

참가신청 및 문의 (자세한 내용은 연락처시문 안내문을 발송해 드립니다.)

Silkroad (주)실크로드여행사 전화: 02-720-9600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68-5 서흥빌딩 9층 (조계사 앞)

티벳 불교의 원전을 통해 달라이라마의 살아 있는 법문을 만나게 됩니다. 이번 통역은 달라이라마의 제자이며 18년간 공부한 청전스님 과 티벳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한국 유학생들이 맡아 진행합니다. 임보리행론은 청전스님이 번역한 교재를 제공입니다.

※ 본 행사는 신청하신 분들만 참석 가능합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이 한국 불자들을 위해 티벳 불교의 원전인 임보리행론(깨달음에 드는길)을 5일동안이나 설법합니다. 평생에 만나기 어려운 이 귀한 법회에 동참하여 좋은 인연 맺으시기 바랍니다.



- 일시 : 2005년 12월 12일 - 12월 16일 (5일간)
- 장소 : 인도 티벳 망명정부가 위치한 다람살라
- 주관 : 여수 석천사 石泉寺(진옥스님 061-662-1607)